

연구논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차이*

오진주** · 이현민***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의 질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에 따라 주관적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조사’ 자료 중 아버지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공교육 선생님과의 관계, 사교육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의 질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각 유형에 따라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학교급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각 계층의 사회적 관계의 질은 5개의 잠재계층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어머니 의존 유형’, ‘친구 의존 유형’, ‘친구 중심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으로 명명하고 고등학생은 ‘어머니 의존 유형’, ‘친구 의존 유형’, ‘가정 외 중심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을 제시하고, 주관적 행복과의 연관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사회적 관계의 질, 행복, 잠재프로파일 분석,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 이 연구는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주관하고 (재)한국방정환재단 및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주최한 ‘제5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공모전’에서 수상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jjoh@korcham.net),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hmwinwin@snu.ac.kr), 교신저자.

I. 서론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열망한다(Argyle 2013; Raghunathan 2016).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높은 행복 수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전체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며(한민 외 2012), OECD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도 하위권에 속한다(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2018). 특히 OECD국가의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행복의 객관적 요소들인 물질적 만족, 교육, 생활 양식 등은 모두 상위권에 속하지만 행복 지수는 하위권에 해당된다(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2018). 청소년기의 행복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성인기에도 영향을 주는데(이진숙·김은주 2013),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청소년기의 행복에 주목하고 교육 및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청소년 행복에 관하여 논할 때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가 고려되어야 한다(임혜림·김서현·정익중 2018; 최종안·김지경·임희진·강현철 2016). 청소년의 발달에 관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맥락과 청소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던 Lerner(1991)의 이론을 적용하였다. Lerner의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맞는 문화, 사회, 학교, 학교 내 교사와 친구들, 부모 및 친척 등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상이한 발달양상을 보인다(Lerner 1991). 실제로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이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가족특성, 환경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김신영·백혜정 2008; 김종백·김태은 2008; Ayyash-Abdo & Alamuddin 2007; Ben-Zur 2003; Suldo, Thalji, & Ferron 2011), Lerner의 이론이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행복을 논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을 논의할 때, 청소년의 행복감 발달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윤기봉·김민주·이운경 2018; 임혜림 외 2018). Lerner의 이론과 이러한 제안들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행복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청소년 사이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부모-자녀 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윤기봉·도현심 2017). 또한 입시경쟁이 극심한 상황과 온라인 소통이 날로 익숙해지는 현대대의 청소년들은 교사나 친구들과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 어렵다(김태은·노원정·안태연·고정화 2015; 김현숙 201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상별 관계를 평균값으로 제시하여 하나의 값으로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 교사,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항으로 측정하여, 이를 평균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로 측정한다(이미라 2001; 김예리·여종일 2020). 그러나 부모와 관계는 좋으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으나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Lerner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에 따르면 대상별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따라서 대상별 관계를 모두 평균하여 살펴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대상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사회적 관계의 질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유형을 보이는지를 구명하고, 더불어 각 유형에 따라 주관적 행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Lerner의 이론적 모형을 실증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에 따라 적합한 사회적 관계 질 구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차이가 있는가?

한편 청소년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이해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권재기·양명희 2014; 이지숙·고기숙 2017), 발달단계에 따라 심리적 상태나 행복 수준에 대한 지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권재기·양명희 2014; 박영신 외 2012). 학교급별로 행복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최유선·손은령 2015; 한혜림·이지민 2018)에 따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행복

인간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내기 어렵다(Seligman & Csizentmihaly 2000). 국내에서 ‘청소년 행복’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황한·김영환(2017)의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에서 각기 다른 용어로 청소년의 행복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의도 연구자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행복은 쾌락주의적 관점(hedonic)과 자기실현적 관점(eudaimonic)인 두 개의 철학적 관점으로 설명된다(허승연 2009). 쾌락주의적 관점은 행복을 정의함에 있어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정서 상태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보며, 원하는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행복이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다. 자기실현적 관점은 행복을 정의함에 있어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권석만 2008). 한 개인이 타인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는데, 자신의 독특함을 발휘하여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을 꾀하거나, 도전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다.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자기실현적 관점의 행복은 측정이 어려운 반면 쾌락주의적 관점의 행복은 측정이 보다 명료하여 쾌락주의적 관점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행되고 있다(유민상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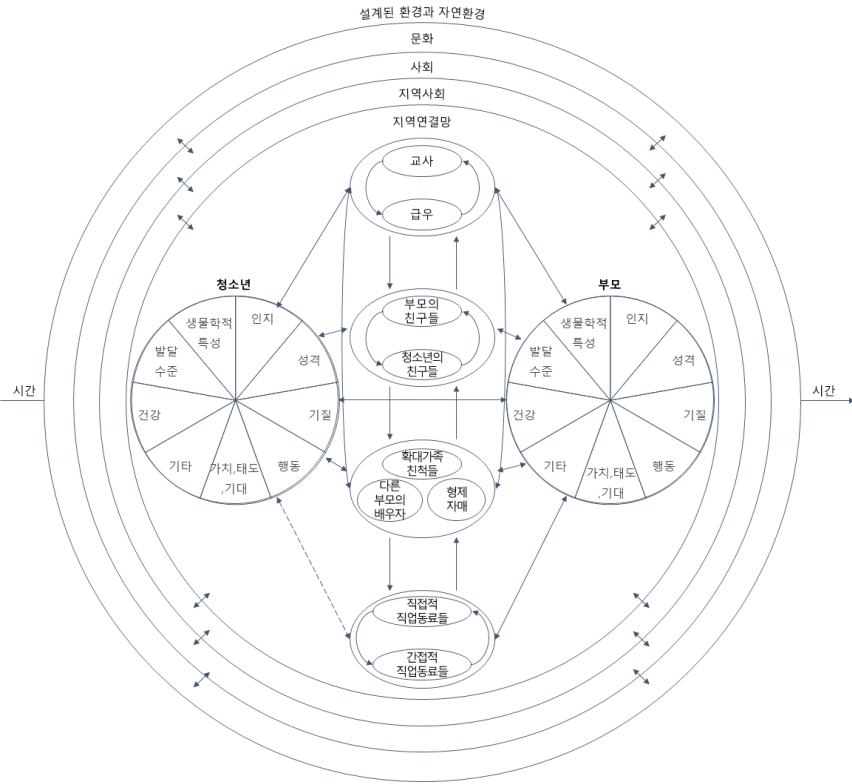
한편 청소년 시기의 행복은 청소년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유민상 2016).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의 행복 역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인간’이라는 큰 틀에서 대상의 특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도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행복의 수준과 상태를 측정하고 있

다. 주관적 행복은 즐거운 감정을 많이 느끼고 불쾌한 기분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이며, 객관적인 조건보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포괄하는 개념이자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박현숙·홍현희·한운선 2018). 이 연구에서는 행복을 즐거운 기분을 더 많이 느끼고 나쁜 기분을 적게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 및 심리상태로 정의하였다.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기일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바람직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 시기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 형태에 관해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이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가족특성, 환경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김신영·백혜정 2008; Suldo et al. 2011), 개인특성과 개인 외적인 환경에 대한 상황을 고려하는 맥락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Lerner로 대표되는 맥락중심적 접근에서 청소년의 발달과 행복을 다루고자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맥락중심적 접근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생태학적 맥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춘경 외 2006). 청소년이 속한 생태학적 맥락에는 가족, 친구, 학교, 사회, 문화 등이 있으며, 청소년은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영향을 주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Diener et al.(2002)와 Seligman(2002)는 청소년이 맺는 긍정적 인간관계가 청소년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은정(2014)의 연구도 청소년 시기에 형성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애정 및 관심 정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Lerner는, 기존의 청소년 발달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을 수동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단계적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보던 것과는 달리, 청소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달의 생성자로 보았으며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Lerner 1991). Lerner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청소년 발달에 대한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1> 참조).



<그림 1> Lerner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

Lerner의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로는 부모를 비롯한 가정 내 관계와 교사와 친구들과를 비롯한 학교 내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Lerner의 모형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많은 사람과 얇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Lerner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대상들 간에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형성한 관계가 다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대상 간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관계 대상이 나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 또는 괴롭히는지 등과 같은 양적인 변인을 사용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최

근에는 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배성만 외 2015).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에 있어 그 질(質)을 살펴보았다. 질(質)이란 사물의 속성, 가치, 유용성, 등급 따위를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의 질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대상과 형성한 사회적 관계의 속성 및 가치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사회적 관계의 질은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어 단순히 양적인 관계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이란 대상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은 대상별 친밀한 상호작용 양상을 유형으로 규명한 것을 의미한다.

3. 청소년 사회적 관계의 질과 행복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갖게 되는 시기이며(유미숙·정계숙·박수홍·차지량·홍광표 2013), 청소년기에 맺는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Piko & Hamvai 2010; Demir, Şimşek, & Procsal 2013).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Lerner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에 착안하여 청소년이 맺는 사회적 관계를 부모, 교사(공교육, 사교육), 친구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계원이 부모, 교사, 친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원두리 2011).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태선·도현심 2017).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는 청소년 행복에 있어 성적이나 가계의 경제수준보다도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서정아·김희주 2016; Suldo & Huebner 2004),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교사나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임혜림 외 2018; Piko & Hamvai 2010). 이 때문에 청소년 행복에 있어서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기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적응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종범 2009; 임정화·전종설 2012; 장재홍 외 2000).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 및 교사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김종백·김남희 2014; 배희진·

정현희 2019).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성인으로, 교사는 청소년과 사제지간의 사회적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부모관계에서 오는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김애경·김성봉 2018; 이유신·김한성 2014). 이 때문에 청소년의 행복에 있어서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의 지지는 행복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교사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김청송 2018). 또한 최근에는 교권의 붕괴와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학교 내 교사보다는 사교육 교사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에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특정 대상과 청소년의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연도)	관계 대상					연구대상
	전체	부	모	공교육 교사	친구	
김청송 (2018)		+	+	+	+	중학생 238명, 고등학생 191명
김태선, 도현심 (2017)		0	+			중학교 2학년 311명
박영신 외 (2012)		+	+	+	+	청소년 985명 (초 269, 중 270, 고211, 대 235)
성은모, 김균희 (2013)		+	+		+	중학교 1,2학년 2,143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2차 자료)
윤기봉, 도현심 (2017)		+	0		+	중학생 667명, 고등학생 459명
임혜림 외 (2018)		+	+	+	+	초·중생 4,538명 (한국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자료)
전기숙 (2016)	+					고등학교 1, 2학년 FGI: 37명 설문조사: 476명
한혜림, 이지민 (2018)		+	+	+	+	청소년 2,351명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 3~6차 자료)

주: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와 행복을 다룬 연구는 없었음.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부모에서 학교, 지역사회, 국가로 점차 확대되는 시기

로, 부모 이외의 집단과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서우석 2013), 자신들만의 문화를 구축하기도 한다(조성남 외 2002; Aktinson & Robson, 2012). 이러한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윤기봉·도현심 2017; 장영애·이영자 2015). 특히 김태선·도현심(2017), 윤기봉·도현심(2017) 연구에 따르면, 전체 대상이 행복에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대상별로 다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Lerner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방정환재단이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조사한 2019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제11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행복지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9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766	49.6	671	46.1
	여자	778	50.4	783	53.9
지역 규모	대도시	728	47.2	699	48.1
	중·소도시	666	43.1	646	44.4
	읍·면지역	150	9.7	109	7.5
학년	1학년	426	27.6	489	33.6
	2학년	545	35.3	501	34.5
	3학년	573	37.1	464	31.9
전체	1,544	100.0	1,454	100.0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등 6개 영역에 대해 한국과 OECD국가의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있다(한국방정환재단 2020). 이 연구에서는 11차 조사대상 중 결측값을 제외한 중학교 1~3학년 1,544명과 고등학교 1~3학년 1,45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교급별로 각각 분석하였다. 대상별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유형화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학교 교사, 사교육 교사, 그리고 친구와 응답자와의 관계의 질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아버지와의 관계(17번), 어머니와의 관계(18번), 공교육 선생님과 관계(6번), 사교육 선생님과 관계(10b번), 친구와의 관계(8번)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른 주관적 행복은 25번 문항을 활용하였다. 세부적인 변인별 문항 코드번호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인 설정

구분	변인명	변인 설명	코드 번호	문항 수	역코딩 문항
구분 변인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SQ6	-	
유형화 변인 (사회적 관계의 질)	아버지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	17-1~4	4	
	어머니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	18-1~4	4	
	공교육 선생님	공교육 선생님과 관계의 긍정적 관계	6-1,2	2	
	사교육 선생님	사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관계의 긍정적 관계	10b-1,2	2	
	친구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	14-1~6	6	1~5
종속 변인	주관적 행복	건강, 학교생활, 나의 삶 등에 만족하고 주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	25-1~6	6	6
전체 문항 수				24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상인 아버지, 어머니,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친구의 관계 문항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관계는 ‘아버지와 나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아버지와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의 문항이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어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공교육 교사와의 관계 문항으로 ‘나는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나는 학교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이며, 사교육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 선생님’을 ‘사교육 선생님’으로 바꾸어 동일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친구 문항은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역문항)’,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역문항)’,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역문항)’,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준다’ 등의 총 6문항이다.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표 4>와 같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0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전체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690~.894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구분	변인명	문항 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화 변인 (사회적 관계의 질)	학교 선생님	2	.762	.759
	사교육 선생님	2	.690	.752
	친구	6	.744	.760
	아버지	4	.884	.894
	어머니	4	.870	.865
종속변인	주관적 행복	6	.791	.826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의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제11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질 유형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측정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때, 잠재되어 있는 집단을 확인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집단의 수를 미리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가장 부합하는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신혜숙 2015).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기준이 있다.

첫째,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t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의 값을 살펴본다. 이 값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잠재집단 수의 증가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VLMRT,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때 p 값이 유의하면, k 잠재집단 모형이 $k-1$ 잠재집단 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셋째, 분류의 질인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Entropy를 살펴본다. 이는 추정된 모델이 모형을 정확하게 분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0~1의 범위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 도출된 각 잠재집단별 표본 대비 집단별 비율을 확인하여, 잠재집단 분류율을 적용한다. Nooner(2010)은 집단별 최소 표본의 비율이 1%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Nooner(2010)의 기준에 따라 집단별 최소 표본의 비율을 1%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집단 도출에는 Mplus 6.12를 활용하였고, 잠재집단이 결정된 이후 집단별로 주관적 행복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전체 평균값과 각 문항별로 분석하였다. 이 중 외로움 문항은 역문항으로 측정되어,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유형 분류

1) 잠재집단 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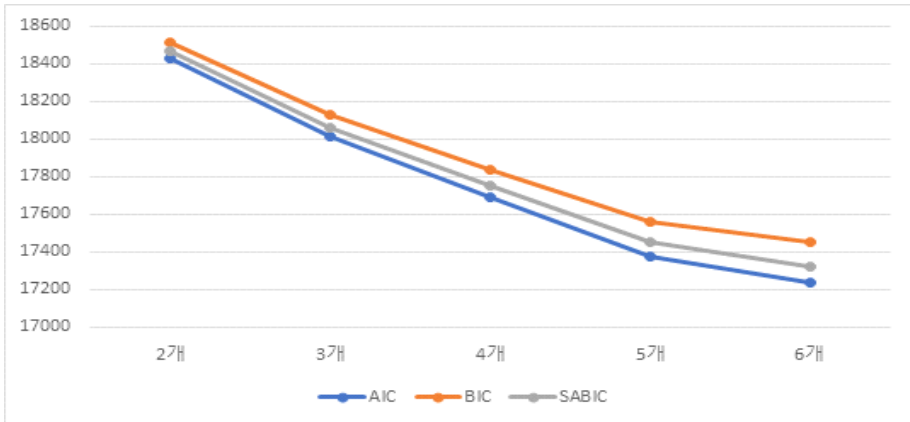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잠재집단을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집단부터 6집단까지 집단의 수를 1씩 증가시켜 정보지수, χ^2 차이검증(p 값), 분류의 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표 5>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 질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보지수	Loglikelihood	-9199.226	-8983.377	-8815.925	-8654.048	-8578.359
	AIC	18430.453	18010.753	17687.850	17376.096	17236.717
	BIC	18515.927	18128.280	17837.430	17557.728	17450.402
	SABIC	18465.098	18058.392	17748.480	17449.718	17323.332
χ^2 차이검증 값 (p 값)	VLMRT	0.0000	0.0003	0.0314	0.0302	0.0307
	LMR LRT	0.0000	0.0003	0.0334	0.0319	0.0325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7840	0.8380	0.8840	0.9180	0.8990
분류율 (%)	집단1	35.0450	10.5030	55.9180	6.4770	9.7150
	집단2	64.9550	32.6850	7.3340	10.9110	2.6550
	집단3		56.8120	8.9130	26.5130	19.4950
	집단4			27.8270	2.7450	5.4400
	집단5				53.3540	14.5080
	집단6					48.1870

정보지수의 AIC, BIC, SABIC는 잠재집단 수가 5개로 변화할 때 가파르게 변화하지만, 이후로는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다. 표본크기가 클 경우, 모형이 복잡할수록 AIC와 BIC가 더 감소하는 현상이 있다(Jedidi, Jagpa, & DeSarbo 1997). 이 경우에는 요인분석에서 스크리도표(scree table)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다(노연경·홍세희 2012). 이에 따라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중학생의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 값 변화

다음으로 χ^2 차이검증(p 값)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VLMRT, LMR LRT, BLRT로 잠재집단 수를 증가시켜 살펴보았다. VLMRT, LMR LRT, BLRT는 모두 $<.50$ 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세 번째 기준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를 살펴본 결과, 5개 집단일 때 .918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표 5> 참조).

2) 잠재집단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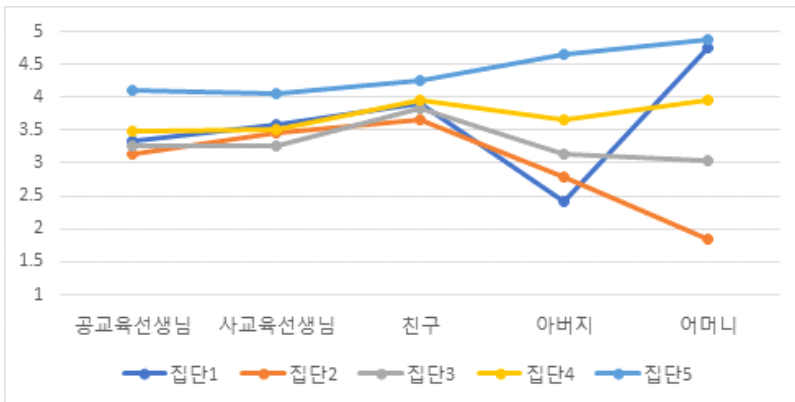
잠재집단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중 집단1에 6.5%, 집단2에 2.7%, 집단3에 10.9%, 집단4에 26.5%, 집단5에 53.4%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 집단별로 친구와의 관계의 수치가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을 명명하였다.

집단1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값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이 낮고 어머니와 관계의 질이 높은 ‘어머니 의존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2는 다른 성인과의 관계 즉, 어머니(3.029)~공교육 선생님(3.261)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관계(3.837)만 평균적 수준으로 확인되어 ‘친구 의존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3은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두 낮고, 그 중 친구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친구 중심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4는 공교육 선생님(3.472)~어머니(3.964)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균등하여 집

단 대상간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원만한 관계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5는 사교육 선생님(4.045)~어머니(4.886)로 전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친밀한 관계 유형’로 설정하였다(<표 6>, <그림 3> 참조).

<표 6>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잠재집단별 특성 분석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어머니 의존 유형	친구 의존 유형	친구 중심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
공교육 선생님과의 관계	3.336	3.129	3.261	3.472	4.094
사교육 선생님과의 관계	3.587	3.456	3.258	3.499	4.045
친구와의 관계	3.907	3.647	3.837	3.948	4.258
아버지와의 관계	2.424	2.786	3.126	3.652	4.645
어머니와의 관계	4.745	1.854	3.029	3.964	4.886
비율(%)	6.5	2.7	10.9	26.5	53.4



<그림 3> 중학생 사회적 관계의 질의 잠재계층의 형태

2.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 분류

1) 잠재집단 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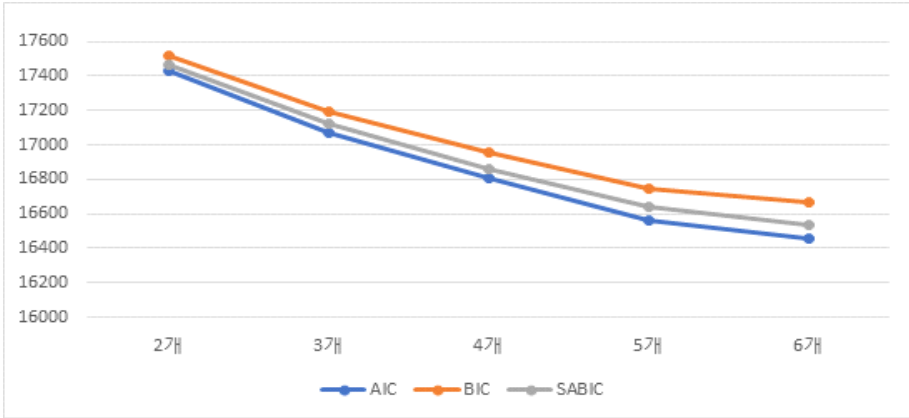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잠재집단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개 집단부터 6개 집단까지 집단의 수를 1씩 증가시켜 정보지수, χ^2 차이검증(p 값), 분류의 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7> 참조).

<표 7>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 질의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보 지수	Loglikelihood	-8699.402	-8514.101	-8374.123	-8248.063	-8186.448
	AIC	17430.805	17072.202	16804.247	16564.126	16452.897
	BIC	17515.318	17188.408	16952.145	16743.717	16664.180
	SABIC	17464.491	17118.521	16863.198	16635.710	16537.113
	χ^2 차이값 (p 값)	VLMRT	0.0006	0.0008	0.0117	0.0003
	LMR LRT	0.0007	0.0009	0.0126	0.0004	0.0176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7960	0.8020	0.9110	0.9050	0.8940
분류율 (%)	집단1	71.7500	14.8600	15.0750	5.8590	23.4780
	집단2	28.2500	33.2440	2.2990	28.1220	11.6940
	집단3		51.8960	53.5250	14.5720	2.1700
	집단4			29.1010	49.1940	46.3310
	집단5				2.2520	5.1110
	집단6					11.2160

정보지수의 AIC, BIC, SABIC는 잠재집단의 수가 5개로 변화할 때 가파르게 변화했고, 이후로는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다. 표본크기가 클 경우, 모형이 복잡할수록 AIC와 BIC가 더 감소하는 현상이 있다(Jedidi, Jagpa, & DeSarbo 1997). 이 경우에는 요인분석에서 스크리도표(scree table)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다(노연경·홍세희 2012). 이에 따라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고등학생의 잠재집단의 수 증가에 따른 AIC, BIC, SABIC 값 변화

다음으로 χ^2 차이검증(p 값)은 VLMRT, LMR LRT, BLRT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VLMRT, LMR LRT, BLRT는 모두 $<.50$ 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세 번째 기준으로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를 살펴본 결과, 4개 집단일 때(.911)와 5개 집단일 때(.905)의 값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기준에서 집단의 수가 6개 이상일 때부터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집단의 수에 관계 없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다. 세 번째 기준에서는 1과 근접한 값을 보인 집단 수 4개와 5개만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집단은 정보지수 기준에 따라 잠재집단의 수가 5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2) 잠재집단별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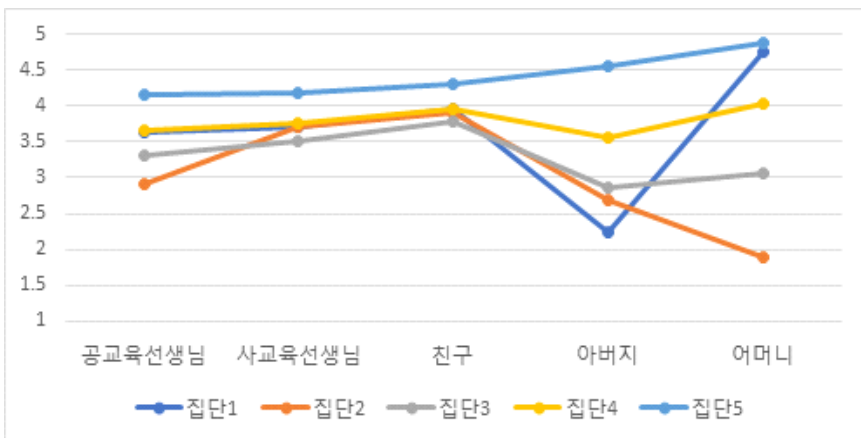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에 따라 잠재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 분석 대상은 5개 집단으로 구분되며, 집단1은 전체 분석대상 중 5.9%, 집단2는 2.2%, 집단3은 14.6%, 집단4는 28.1%, 집단5는 4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을 명명하였다. 집단1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값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아버지와는 관계의 질이 낮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 의존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2는 어머니, 아버지와는 관계뿐만 아니라, 공교육 선생님과의 관계도 낮고, 사교육 선생님과 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친구 의존 유형’으로 설정

하였다. 집단3은 부모와의 관계는 낮으나 가정 밖의 관계는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어 ‘가정 외 중심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4는 전체 관계가 아버지(3.558)~어머니(4.033)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원만한 관계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집단5는 공교육 선생님(4.149)~어머니(4.887)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어 ‘친밀한 관계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표 8>, <그림 5> 참조).

<표 8>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잠재집단별 특성 분석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어머니 의존 유형	친구 의존 유형	가정 외 중심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
공교육 선생님의 관계	3.641	2.902	3.311	3.650	4.149
사교육 선생님의 관계	3.698	3.715	3.516	3.763	4.172
친구와의 관계	3.949	3.915	3.783	3.966	4.310
아버지와의 관계	2.250	2.677	2.866	3.558	4.554
어머니와의 관계	4.767	1.879	3.073	4.033	4.887
비율(%)	5.9	2.2	14.6	28.1	49.2



<그림 5>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의 잠재집단의 형태

3.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차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별로 도출한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 간 차이

구분	잠재집단	주관적 행복 평균	표준 편차	F/p	사후검증				
					a	b	c	d	e
중학생	a. 어머니 의존 유형	3.68	0.739	109.720***				*	*
	b. 친구 중심 유형	3.53	0.707				*	*	*
	c. 원만한 관계 유형	3.84	0.627			*		*	*
	d. 친구 의존 유형	2.87	0.817			*	*	*	*
	e. 친밀한 관계 유형	4.31	0.642			*	*	*	*
고등학생	a. 어머니 의존 유형	3.65	0.833	81.779***				*	*
	b. 원만한 관계 유형	3.70	0.710				*	*	*
	c. 가정 외 중심 유형	3.36	0.750			*		*	
	d. 친밀한 관계 유형	4.20	0.681			*	*	*	*
	e. 친구 의존 유형	3.17	0.878			*	*	*	*

주: 외로움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 문항으로 주관적 행복 평균값 산출 시 역코딩하였음.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F=109.7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유형’이 4.31로 가장 높았고, ‘원만한 관계 유형’이 3.84, ‘어머니 의존 유형’이 3.68, ‘친구 중심 유형’이 3.53, ‘친구 의존 유형’이 2.8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결과, ‘친밀한 관계 유형’과 나머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친구 의존 유형’도 나머지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만한 관계 유형’은 ‘친구 중심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F=81.77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유형’이 4.20으로 가장 높았고, ‘원만한 관계 유형’이 3.70, ‘어머니 의존 유형’이 3.65, ‘가정 외 중심 유형’이 3.36, ‘친구 의존 유형’이 3.1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결과, ‘친밀한 관계 유형’과 나머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친구 의존 유형’은 ‘어머니 의존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9> 참조).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주관적 행복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별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과 주관적 행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질은 학교급별로 각각 5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아버지, 어머니,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친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은 다섯 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 특성에 따라 '어머니 의존 유형', '친구 의존 유형', '친구 중심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도 다섯 개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 특성에 따라 '어머니 의존 유형', '원만한 관계 유형', '가정 외 중심 유형', '친밀한 관계 유형', '친구 의존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잠재집단을 확인한 결과 집단 5개 중 3개 정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밀한 관계 유형’은 중학생 53.4%, 고등학생 49.2%로 나타났고, ‘원만한 관계 유형’은 중학생 26.5%, 고등학생 28.1%로 나타났고, 전체에서 중학생 79.9%, 고등학생 77.3%가 ‘친밀한 관계 유형’과 ‘원만한 관계 유형’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통 이상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잠재집단의 차별적인 유형으로 중학생의 ‘친구 중심 유형’과 고등학생의 ‘가정 외 중심 유형’이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친구 중심 유형’은 ‘원만한 관계 유형’보다 전반적으로 관계의 질 수치가 낮으나 상대적으로 친구와의 관계만 높은 양상을 보인다. 한편 고등학생의 ‘가정 외 중심 유형’은 부모와의 관계는 다소 낮은 편(어머니 3.07, 아버지 2.87)이며, 가정 외의 관계인 공교육 선생님(3.31), 사교육 선생님(3.51), 친구(3.78)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중학교 시기의 ‘친구 중심 유형’이 고등학교 시기의 ‘가정 외 중심 유형’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한 해석은 어려우며,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친구 의존 유형’이 각각 2.7%, 2.2%로 확인되었다. 이 유형을 대상별로 살펴본다면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 낮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낮게 나타났다(어머니 1.85, 아버지 2.79). 고등학생도 부모와 낮은 관계(어머니 1.87, 아버지 2.68)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중학생의 ‘친구 의존 유형’의 공교육 선생님과 관계는 3.13이었으나, 고등학생의 공교육 선생님과 관계는 2.90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급별 ‘친구의존 유형’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친구에 의존하는 중학생은 부모와의 관계만 낮은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와 공교육 선생님과 관계도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와의 관계의 값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 외에도 아버지, 친구, 선생님과 관계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Lerner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부모가 청소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가 주변 환경의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유형을 나누는 요인으로, Lerner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친밀한 관계 유형’과 나머지 집단이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질이 높은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생들보다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특히 사회적 관계의 질이 낮은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개인의 주

관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제언

이 연구의 제언은 후속연구의 제언과 실천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중학생에게서 나타났던 대부분의 유형이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학생에서 관찰되었던 ‘친구 중심 유형’이 고등학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친구 중심 유형’이 고등학생 때 가족을 제외한 다른 관계에 집중하는 유형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데이터는 매년 동일한 나이대를 표집하는 조사이므로 종단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때, 대상별 관계를 살펴보거나 이 연구와 같이 대상별 관계를 종합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상별 관계 또는 대상별 관계를 평균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대상별로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맺을 수 있는 대상별 관계와 그 관계가 다른 대상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청소년의 대상별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지지를 분석할 때, 대상별로 살펴보거나 유형의 형태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 중 어머니와의 관계가 낮은 학생집단은 공교육 교사와의 관계의 질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낮은 것이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을 결정하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에 차이가 확인되었고,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이 친밀한 관계 유형 학생은 행복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의 질 유형이 친밀한 관계 유형인 학생은

다른 집단의 학생보다 어떤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이 영향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각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형태, 형제자매 수 등을 통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버지와의 관계가 낮은 집단의 이유를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지, 폭력적으로 대하는지, 의사표현 방식의 상이한지, 동거 여부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집단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낮은 집단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반수가 친밀한 관계 유형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고 교사와 친구와도 모두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등학생일수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므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는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도 증진시킨다는 연구에 따라 어머니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거나,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자녀와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아버지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낮으면 다른 대상과의 관계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캠프클럽, 아버지의 직장체험을 통한 아버지의 삶 이해, 자녀의 공부습관, 성격검사 등의 강의로 자녀에 대한 이해 등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진로지원센터, 가족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의 성격 검사를 통한 이해, 부모

와 자녀의 상담, 그룹 상담 등 자녀와 친숙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도 부모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족 구성원 간 친밀한 상호작용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호나 가족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가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도 가족의 긍정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을 높이기 위해 부모,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그리고 친구와의 전반적인 긍정적 관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 및 선생님과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급 내에서 친구와의 대화시간, 선생님과 대화시간 등을 만들어 소통의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 권재기·양명희. 2014.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행복감 프로파일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20(3): 201-227.
- 김신영·백혜정. 2008.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애경·김성봉. 2018.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휴대전화 의존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5(8): 245-267.
- 김예리·여종일. 202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행복의 관계: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73-100.
- 김종백·김남희. 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 김중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청송. 2018.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177-197.
- 김춘경·이수연·최용용. 2006. 《청소년상담》. 학지사.

- 김태선·도현심. 2017. “부·자녀 및 모·자녀 의사소통이 남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0): 107-138.
- 김태은·노원경·안태연·고정화. 2015.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의 교과태도 및 학교행복감 차이 분석.” 《초등교육연구》 28(4): 61-89.
- 김현숙. 2016. “부모-자녀관계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을 매개로 학교생활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와 양부모의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55: 113-141.
- 박영신·김의철·한기혜·박선영.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박현숙·홍현희·한윤선. 201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기반으로 한 구조모형.” 《조사연구》 19(2): 1-23.
- 배성만·홍지영·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 배희진·정현희. 2019. “청소년기 교사-학생관계와 우울 간의 상호인과성 종단검증.” 《청소년문화포럼》 57: 52-71.
- 서우석. 2013. “한국의 사회동향: 청소년 여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193-197.
- 서정아·김희주.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진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기봉·도현심. 2017. “부·자녀 및 모·자녀 의사소통과 친구관계의 질이 중·고등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8(2): 149-164.
- 윤성민. 2016.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웹기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4): 653-684.
- 이미라.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유신·김한성. 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 이지숙·고기숙. 2017.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및 고등학생 비교” 《한국사회복지교육》 40: 157-180.
- 이진숙·김은주. 2013. “아동의 기질,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5): 433-445.
- 임정화·전종철. 2012. “부, 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이 남, 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임혜림·김서현·정익중. 2018. “가정 및 학교 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70(2): 145-170.
- 장영애·이영자. 2015.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 관계,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147-156.
- 장재홍·김태성·김현주·이호준. 2000. 《부모교육프로그램 연구: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현황과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기숙. 2016. “청소년의 행복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3(10): 411-429.
- 조성남·이동원·박선웅. 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집문당.
-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104-127.
- 최유선·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상담학연구》 16(2): 233-247.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한혜림·이지민. 2018.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잠재성장모형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103-117.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환·김영환. 2017. “국내 청소년 행복의 영향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청소년학연구》 24(7): 1-28.

- Argyle, M. 2013. *The Psychology of Happiness*(2nd ed.). NY: Routledge.
- Atkinson, S. and M. Robson. 2012. “Arts and Health as a Practice of Liminality: Managing the Spaces of Transform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Health & Place* 18(6): 1348-1355.
- Bojanowska, A. and M. Zalewska. A. 2016. “Lay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the Experience of Well-being: Are Some Conceptions of Happiness More Beneficial than Othe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7(2): 793-815.
- Demir, M., F. Şimşek, and D. Procsal, A. 2013. “‘I Am so Happy’ Cause My Best Friend Makes Me Feel Unique: Friendship, Personal Sense of Uniqueness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4): 1201-1224.
- Lerner, R.M. 1991. “Changing Organism 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7-32.

- Piko, B.F. and C. Hamvai.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 Raboteg-Saric, Z. and M. Sakic. 2014. "Relations of Parenting Styles and Friendship Quality to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Adolesc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9(3): 749-765.
- Raghunathan, R. 2016. *If You're so Smart Why Aren't You Happy: How to Turn Career Success into Life Success*. Random House.
- Seligman, M.E.P. and M. Csikszentmihalyi.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uldo, S.M. and E.S. Huebner.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5.
- Suldo, S., A. Thalji, and J. Ferron. 2011. "Longitudinal Academic Outcomes Predicted by Early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Psychopathology, and Mental Health Status Yielded from a Dual Factor Model."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6(1): 17-30.

<접수 2020.06.18; 수정 2020.12.12; 게재확정 2021.01.08>

Difference in Subjective Happiness of Adolesc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Oh Jinju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ee Hyun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ypes of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subjective happines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potential parental profile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public school teacher, private education teacher and friends among the data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in harvested from the Korean Bangjunghwan Foundation and Yonsei University of 2019.

The analysis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al rearing attitudes of each class was named and characterized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social relationship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The results further demonstrate that it is important to suggest a practical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Key words: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happiness, latent profile analysis, adolescent,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